

2021

정책연구 2021-30

전라북도 중장기 국제행사 발굴 연구

연구진 이동기 · 송용호 · 김수지

Jeonbuk Institute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 협력

연구진 소개

이동기

중앙대학교 행정학박사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센터장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용호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수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석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연구 2021-30

전라북도 중장기 국제행사 발굴 연구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이동기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1절, 제3장 4절
공 동 연 구	송용호	전문연구원	제2장 2절, 3절, 제3장 2절, 3절
	김수지	전문연구원	제2장 2절, 3절, 제3장 1절, 3절

연구관리 코드 : 20JU2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
가. 연구목적	11
나. 연구범위	1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가. 연구내용	13
나. 연구방법	13
제2장 국제행사	17
1. 국제행사의 개념 및 추진 절차	17
가. 국제행사의 개념	17
나. 국제행사 유치 추진 절차	18
2. 전라북도 국제행사 현황	20
가. 국제행사 추진 개요	20
나. 국제행사 세부 내용	23
3. 국제행사 추진 사례	33
가. 국가주도 세계박람회	33
나. 기획재정부 승인 국제행사	35
다. 국제경기대회 유치현황	40
라. 국제행사 유치 및 승인 추진 동향	43
제3장 전라북도 국제행사 구상(안)	47
1. 국제행사 발굴절차	47
2. 엑스포박람회 구상(안)	50
가. 한국판 뉴딜 엑스포	50
나. 새만금 세계스타트업(창업)전시엑스포	55
다. 새만금 국제정원 박람회	59
라. 세계 생태문명 엑스포	62

3. 국제경기대회 구상(안)	65
가. 2023년 세계직장인 올림픽대회	65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67
다. 세계경찰소방관 경기대회(World Police and Fire Games)	71
라.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쉽(Asia-Pacific Amateur Championship, AAC)	75
마. 하계월드마스터스 대회	78
4. 국제기구 : FAO 세계농업대학	81

표목차 | Contents

〈표 2-1〉 전라북도 대규모 행사 추진 현황	23
〈표 2-2〉 역대 국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24
〈표 2-3〉 국제박람회 기구 공인박람회 구분	34
〈표 3-1〉 주요 도입시설(안)	52
〈표 3-2〉 GLOBAL STARTUP FESTIVAL COMEUP 2020 스페셜 이벤트	58
〈표 3-3〉 개최현황	60
〈표 3-4〉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역대 개최 현황	68
〈표 3-5〉 세계경찰관경기대회 개최지	73
〈표 3-6〉 아시아-태평양 여자 아마추어챔피언십 개최 현황	76
〈표 3-7〉 월드마스터스대회 역대 개최 현황	79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국제행사 유치 추진 절차	19
〈그림 2-2〉 여수박람회	34

1 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가. 연구목적

■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로 자존감 형성 및 지역발전 기여

-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 및 개최로 도민의 자존감 및 자긍심 향상
 - 연속적인 대규모 행사 유치 및 추진으로 자신감 획득
 -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
- 대규모 행사 유치 및 개최로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에 기여
 - 전라북도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인해 행사 참여객 및 행사 관람객, 가족단위 방문 등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 유발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선수단 1,768명 등 4만 명 방문하였고 1,0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 창출
 - 아시아태평양마스터 대회는 2023년 개최 예정이며, 추정 방문인원은 13,000여명, 방문객 총 지출액 295억 원, 생산부가가치 효과 807억 원 추정
 -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170개국 5만 명 방문이 예상되고 전북 경제적 효과 3조 6,971억 원으로 추정

■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발굴 필요

- 지속적인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전북 발전 도약 기회 마련
 - 국제행사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급효과 극대화하고 문화 및 관광, 지역특화산업 등의 동반 성장을 견인

- 전라북도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도민의 협력 기반 구축
 - 국제행사는 외국인 및 국내인이 방문, 행사참여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제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통해 전라북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제 행사를 추진을 위한 자원 연계 및 인프라 등을 구축
 -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도민들의 지속적인 자긍감 형성 및 행사 추진을 위한 협력 및 상생 기반 형성

나. 연구범위

- 중점 유치 대상은 국제기구나 국가지원 근거가 있고, 전라북도 대도약 사업과 연관된 중대규모 행사 및 국제기구를 선정
 - (기재부 규정) 대규모 국제행사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
 - (한국관광공사 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의 이벤트를 중대형으로 분류하여 지원(중형 500~1,000명, 대형 1,000~2,000명, 초대형 2,000명 이상)
- 발굴 대상범위는 박람회 및 국제경기 대회, 국제기구 등 중심
 - (박람회)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로 높아진 새만금의 인지도와 연관산업 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대규모 국가 주도 박람회(엑스포) 유치
 - (국제경기대회) 국내에 국제경기대회가 아태마스터스, 2024 대구세계마스터스 육상 경기대회, 2024년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됨. 유치 가능한 국제경기대회 검토
 - (국제기구) 기존의 국제기구 총회, 국제기구의 신설·유치 등 종합적 검토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전라북도 국제 행사 현황 분석

- 전라북도에서 유치하였던 대규모 행사에 대한 현황을 분석
 -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2017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2018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9년),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2020년),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2023년), 제25회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년) 등

■ 국제 행사 사례 분석

- 국내 기획재정부 승인 국제행사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 사례 등 분석

■ 국제 행사 발굴

- 전라북도의 여건 및 자원 등을 고려한 박람회, 국제경기,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발굴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제행사 관련 현황 및 이론 등을 위한 문헌연구 수행

■ 전문가 자문

- 국제행사 발굴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

■ 담당 부서와의 업무협의

- 국제행사 발굴 등을 위한 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도모

2 장

국제행사

-
- 1. 국제행사의 개념 및 추진절차
 - 2. 전라북도 국제행사 현황
 - 3. 국제행사 추진사례

제 2 장 국제행사

1. 국제행사의 개념 및 추진 절차

가. 국제행사의 개념

- 국제행사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국제행사 유치 승인을 위한 법령으로 규정하여 관리
- 국제행사의 개념은 기획재정부의 훈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에 정의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이상(총참여자 200만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말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외국인 참여비율이 5%이상(총 참여자 200만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문화행사, 국제관광행사, 국제체육대회를 말함”

■ 규모별 국제행사의 구분

- 대규모 국제행사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유치·개최 규정)
- 중소규모 국제행사 : 외국인 참가가자 10명 이상이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100명이상 참가하여 2일 이상 개최되는 문화행사, 학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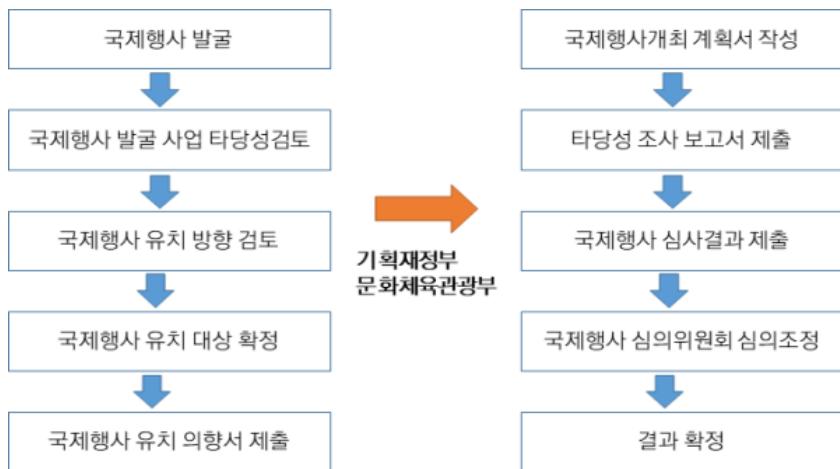
의, 기구총회 등의 국제행사(전라북 국제행사 지원 규정 제3조)

■ 국제행사 심의 대상 및 심의 내용

- 심의 대상 : 10억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 심의 내용 : 사업 타당성, 재원조달대책, 주요시설 계획 및 활용계획 등

나. 국제행사 유치 추진 절차

- 국제행사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과정은 자체 발굴 및 유치계획 수립과 중앙부처(기획재정부 등)의 심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짐
-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국제행사를 발굴하고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방향을 결정한 후 유치대상을 확정한 후 타당성 검토 및 유치계획서 등을 수립하는 것임
- 그 다음으로 국제행사의 유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국제행사 사전 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앙부처 제출용 국제행사 개최 기본계획 등을 작성하여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함
-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로 최종 결정된 이후 국제행사 추진 조직위원회, 실무조직 구성,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수 있음



〈그림 2-1〉 국제행사 유치 추진 절차

2. 전라북도 국제행사 현황

가. 국제행사 추진 개요

- 전라북도는 대규모 행사를 7년 연속으로 추진하였음. 주요 대규모 행사는 ‘제23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2017년)’를 비롯하여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2023년 예정)’ 그리고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2023년 예정)’ 등
 - 개최완료 :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2017년) → 제99회 전국체육 대회(2018년) →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9년)
 - 개최예정 : 2020년 생활체육대축전(취소) → 2021년 프레잼버리(2022년 예정) →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2023년)→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2023년) → 제33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2025년)
- 2017년 개최되었던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 태권도 연맹이 주관하는 국제 태권도 대회로 1973년 제1회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제24회 대회가 개최됨
- 2017년 무주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7번째 대회이며 세계 180여 개국에서 1,700여명 이상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대회로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종합 경기대회로 전국 각 시도를 중심으로 열리는 스포츠 축제이자 국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임
- 2018년 개최되었던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시도에서 선수만 1,237명이 참가

하였고 임원진과 관람객 등의 방문객을 포함 약 9만여 명이 방문하여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남

-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초등부와 중학부를 분리시켜 개최하는 종합경기대회로 1972년 제1회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 익산을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열린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36개 종목에 1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였으며, 선수 학부모 및 연고 학교 등에서 약 5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며 지역경제 생산유발액 311억 원, 부가 가치유발액 158억 원, 고용유발효과 700여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제13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개최효과 포함)
-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당초 2020년 4월에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북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였으나 COVID-19로 인해 몇 차례 연기되어 잠정 연기된 후 개최가 취소됨
- 프레잼버리(pre-jamboree)는 제25회 스카우트잼버리 2년 전에 운영 시스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됨
- 당초 2021년 개최 예정이던 프레잼버리는 COVID-19로 인해 2022년으로 개최가 연기됨
 -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2020년 개최 예정이던 유럽지역잼버리가 COVID-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같은 이유로 연기되었던 프레잼버리 역시 1년 뒤인 2022년으로 개최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연령, 성별, 국가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로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첫 대회가 시작된 이래 4년마다 개최되고 있음

- 당초 2022년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2021 간사이 월드마스터스대회’가 1년 연기 예정됨에 따라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도 2023년으로 연기됨
-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하여 4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약 5만여 명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문화를 교류하는 청소년 국제행사로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됨
-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00억 원, 부가가치효과 300억 원, 고용 1,0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새만금 및 전북브랜드 가치상승,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전북 균형발전 등의 기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이어 2025년 개최되는 제33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되면서 추가적인 지역 파급효과가 기대됨

〈표 2-1〉 전라북도 대규모 행사 추진 현황

개최년도	행사명	개최지역	행사규모	비고
2017년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180여개국, 4만 여명	개최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북일원, 익산중심	시도 선수단, 3만 여명	개최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일원, 익산중심	시도 선수단, 1만 여명	개최
2020년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북일원, 익산중심	-	취소
2022년 예정	2021 프레僵尸리	세계僵尸리 개최예정지	50개국, 3만여명	개최예정
2023년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전북일원	70개국, 13천여명	개최예정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僵尸리	새만금일원	171개국, 5만여명	개최예정
2025년	제33회 아시아-태평양僵尸리	새만금일원	50개국, 2만여명	개최예정

나. 국제행사 세부 내용

■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국제 태권도 대회로 1973년 서울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최근 201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제24회 대회가 개최되었음
- 2017년 무주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7번째 대회이며 세계 180여 개국에서 1,700여명 이상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여함

〈표 2-2〉 역대 국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개최년도	행사명	개최지역
제1회	1973	서울
제2회	1975	서울
제7회	1985	서울
제9회	1989	서울
제15회	2001	제주
제20회	2011	경주
제23회	2017	무주

-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평가
- 대회 개최에 총 99억(국비 12, 지방비 66.2, 기타 20.8)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경기 기간(2017년 6월 24일~6월 30일, 7일간) 내 약 4만 명 방문한 것으로 추정
- 본 대회는 국가수반(대통령)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한 대회이고, 역대 세계 대회 및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대회임. 또한, 북한 시범단(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¹⁾의 첫 시범이 펼쳐진 한국대회라는 기록

1) ITF시범단의 방한은 2007년 이후 10년 만이며, 한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의 행사에서 시범공연을 진행한 것은 처음임. 2017 무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폐회식 공연을 포함하여 네 차례 시범을 펼쳐 보임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대회명 :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대회기간 : 2017. 6. 24. ~ 6. 30.
- 장소 : 태권도원 T1경기장(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 참가규모 : 183개국 1,768명(선수, 임원 등)
- 주요내용 : 남녀 각 8체급 경기, 개·폐막식, 태권도국제컨퍼런스, 문화행사 등
- 주최/주관 : 세계태권도연맹(WTF)/대한조직위원회
- 대회비전
 - 태권도원을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이미지 구축
 - 대회사상 세계최대규모의 태권도 국제 이벤트로 종주국의 위상강화
 - 태권도와최첨단 ICT기술을 결합한 스포츠 융복합산업 창조선도
 - 전라북도와 무주의 태권도 브랜드 창출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분위기 조성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종합 경기대회로 전국 각 시도를 중심으로 열리는 스포츠 축제이자 국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임
 -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스포츠 대회로 1920년 개최된 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하며 이후 몇 번의 대회중단(조선체육회 해체, 총동부 금지령, 6.25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이 있었지만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로 평가되고 있는 경기임
- 전라북도는 전라도 개도(開道) 천년을 맞아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 되라 대한미국’이라는 구호아래 전라북도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일원에서 개최함

- 각 시도에서 선수만 1,8601명이 참가하였으며, 임원진과 관람객 등의 방문객을 포함 약 9만여 명이 방문하여 약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제99회 전국체육대회』	
· 대회명	제99회 전국체육대회
· 대회기간	2018. 10. 12. ~ 10. 18.
· 장소	전라북도 일원(익산종합운동장 등 14개 시·군 73개 경기장)
· 개최종목	47종목(정식:46종목, 시범:1종목)
· 참가규모	24,924명(선수 18,601명, 임원 6,323명)
· 대회 구호	비상하라 천년정북, 하나되라 대한민국
· 마스코트	서동왕자, 선화공주
· 주최/주관	대한체육회/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체육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초등부와 중학부를 분리시켜 개최하는 종합경기대회로 1972년 제1회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
-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익산을 주 개최지로 도내 일

원에서 개최되었으며 36개 종목에 1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함.
이밖에 선수 학부모 및 연고 학교 등에서 약 5만여 명이 방문한 것
으로 추정

-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생산유발액 311억 원, 부가 가치유발액 158억 원, 고용유발효과 700여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 것
으로 추정됨(제13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개최효과 포함2)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대회명 :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대회기간 : 2019. 5. 25. ~ 5. 28.	
· 장소 : 전라북도 일원	
· 개최종목 : 36종목	
· 참가대상/참가규모 : 초등부, 중학부 / 17,234명(선수 12,231명, 임원 5,003명)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체육회	
· 후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2021 프레잼버리(pre-jamboree)

- 프레잼버리(pre-jamboree)는 제25회 세계 캠버리행사의 예비대회로 본 대회 2년 전에 개최하여 운영 시스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됨

2) 제13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 2019. 5. 14.~ 5. 17. 전북 익산을 주 개최지로 도내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17개 종목선수 1885명과 임원 및 관계자 1,722명이 참가함

- 더불어 프레잼버리 계기로 본 대회의 청소년참여 확대, 국민적 관심 도모 등의 잼버리 봄을 조성하고자 50개국에서 약 3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임
- 당초 2021년 8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잼버리조직위원회는 2021 프레잼버리 개최를 연기한 실정임
 -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2020년 개최 예정이던 유럽지역잼버리가 COVID-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같은 이유로 연기되었던 프레잼버리 역시 1년 뒤인 2022년으로 개최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

『2021 프레잼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명 : 2021 프레잼버리 · 개최예정 : 미정(2022년 예상) - 당초 2021. 8. 2. ~ 8. 8.에 개최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연기됨 · 장소 : 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예정지 내 우선 매립구역(약 47만평) · 참가규모 : 50개국 20,000명~30,000명 	

■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

-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연령, 성별, 국가에 제약 없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 체육대회로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첫 대회가 시작된 이래 4년마다 개최
 -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International Masters Game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마스터스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세계대회인 월드 마스터스대회는 하계 월드 마스터스대회, 동계 월드 마스터스대회로 나누어 개최

- ❖ 하계마스터스대회는 2022년 일본 간사이에서 개최되며, 이후 2025년 대만 신베이, 2029년 미국 LA가 개최 예정이 되어있음
- ❖ 2033년 월드 마스터스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전북에서의 유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 한편, 대륙별로 유럽 마스터스대회, 아메리카 마스터스대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늦게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19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당시 65개국 6,750명이 참가하였음
- ❖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대회 명칭 상 참가국이 아시아태평양으로 한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생활체육이 발달된 유럽과 북미 지역 등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출전 가능함
-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대회는 당초 2022년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2021 간사이 월드마스터스 대회’가 1년 연기 예정됨에 따라 본 대회도 2023년으로 연기됨
 - ❖ 대회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 '23. 05. 12. ~ '23. 05. 20.로 확정됨
- 대회유치 비용은 약 79억 원으로 추산되며, 대한민국 약 7,200여 명, 아시아·오세아니아·유럽 등 5,800여명 등 전 세계 70개국, 약 13,000여명이 대회에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방문객 총 지출액 259억 원,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 807억 원,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 1,049명 등이 예상됨(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9)
- 대회 개최효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스포츠 발전에 기여’, ‘스

포츠 인프라의 지속 활용 모델 제시’, ‘시민의식의 강화’,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예상됨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명 :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Asia pacific masters games 2022 Jeonbuk Korea)· 개최예정 : 2023. 05. 12. ~ 2023. 05. 20<ul style="list-style-type: none">- COVID-19의 영향으로 당초 2022년 6월에서 연기됨· 장소 : 전라북도 일원· 개최종목 : 26개 종목(정식:24종목, 시범:2종목)· 참가대상 : 연령, 성별, 국가에 제한없이 전세계 누구나 참여 가능· 참가규모 : 70개국, 13,000여명· 주최/주관 : IMGA/전라북도, 전북아태마스터즈대회 조직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대회비전 : 건강한 삶의 시작, 사람을 위한 스포츠 확산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모험을 탐험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스카우트 운동 창시자인 베이든포우엘경이 1920년 영국 런던 올림피아에서 개최한 제1회 국제잼버리가 시초가 됨
- 현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하여 4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약 5만여 명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문화를 교류하는 청소년 국제행사로 평가되고 있음

-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45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가할 예정임
 -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는 하나(Many Lands, One World)’라는 주제로 개최한 경험이 있음(135개국 19,083명이 참가)
 -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23년 제23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3만 5,000명의 스카우트 대원, 회원국 대표단 1,500명, 인솔지도자 및 운영요원 1만 3,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함
-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만큼 새만금 신공항 및 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내부간선도로, 새만금-군산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등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더불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00억 원, 부가가치효과 300억 원, 고용 1,0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대회 새만금에 개최함으로써 새만금 및 전북 브랜드 가치상승,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전북 균형발전, 등의 기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이어 2025년 개최되는 제33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되면서 추가적인 지역 파급효과가 기대됨
 -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야영대회로 50개국 2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대회명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개최예정 : 2023. 8. 1.~ 8. 12.
- 장소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9.9km², 약 300만평)
- 참가대상 : 만14세~17세(2023년 기준)
 - 대학생 및 지도자들은 행사 운영요원으로 참가 가능
- 참가규모 : 170개국 5만여 명 참가(국외 4만 명, 국내 1만 명)
- 주제 : Draw Your Dream! (네 꿈을 펼쳐봐!)
- 주요행사 : 개영식, 과정활동(야영,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 한국의 밤, 국제의 밤 등
- 주최/주관 : 세계스카우트연맹 / 한국스카우트연맹



3. 국제행사 추진 사례

가. 국가주도 세계박람회

■ 2030 부산세계박람회(등록박람회)

- 정부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승인하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추진·유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분간 국제기구 승인 박람회 유치 어려움(개최지 결정 : 2023년)
 - 국제박람회기구는 엑스포 개최지 결정과 개최 및 참가에 따른 기준 설정, 관리감독 수행, 회원국 170여국
 - 동일 국가에서는 같은 성격의 엑스포를 15년 내에는 재차 개최할 수 없음
 - 국내 전문엑스포(인정박람회) 개최 : 대전엑스포(1993), 여수엑스포(관람객 820만명, 104개국 10개 국제기구참가)
 - ❖ 대전엑스포(관람객 1,400만명, 108개국 33 국제기구참가), 여수엑스포(관람객 820만명, 104개국 10개 국제기구참가)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요 】

- 기간 : 2030년 5월~11월 (6개월)
- 장소 : 부산시 북항 일원 (266만㎡ : 육지 224만㎡, 수역 42만㎡)
- 주제 : 「인류 공존과 번영의 지혜 공유」 - 인간·기술·문화의 초연결 (가제)
- 방문 : 약 160여개국 5,050만 명(예상) /총투자비 : 4조8,995억원
- 경제효과 : 생산유발 43조원, 고용창출 50.4만명, 부가가치유발 18조원 추정
- 추진경과 : 2014년기획, 2018년 기획재정부 국제행사타당성통과, 2019년 국무회의통과 국가사업 확정

〈표 2-3〉 국제박람회 기구 공인박람회 구분

구분	월드엑스포 (World Expo, 종전 등록엑스포)	전문엑스포 (Specialized Expo, 종전 인정엑스포)
주제	· 광범위한 대상	· 분명하고 제한된 주제
시기/ 기간	· 매 5년마다 · 6주~6개월	· 등록엑스포 사이 1회 · 3주~3개월
전시면적	· 제한 없음	· 25ha 이하 (7.5만평)
비용분담	· 개최국 : 부지 제공 · 참가국 : 자비로 국가관 건설	· 개최국 : 국가관 건설, · 참가국 : 유상·무료 임대
개최현황	· 2000 독일하노버 · 2010 상해박람회 · 2015 밀라노박람회 · 2020 두바이 박람회 · 2025 오사카간사이박람회 · 2030 부산박람회 (국가주도 유치 중)	· 1993 대전엑스포 · 2005 일본 아이치 · 2008 스페인 사라고사 · 2012 여수박람회 · 2017 중국아스티나 · 2022 부에노스아리레스 (아르헨티나)
사업비	· 4.9조원(2030 부산)	· 2.1조원(2012 여수)
참가자	· 140여개국 · 2.2천만명(2015 밀라노)	· 100여개국 · 8백만명(2012 여수)



〈그림 2-2〉 여수박람회

나. 기획재정부 승인 국제행사

■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 강원도는 산림청과 함께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추진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20.11.26)
- 강원도는 대한민국 전 국토면적의 63%와 강원도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역사, 문화, 생활, 생태 등과 「평화」의 콘텐츠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국제사회 공유 등을 목표로 추진
- 엑스포 개최 시 생산유발효과 3,25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43 억 원, 고용유발효과 5,065명 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예상

『2022 강원산림엑스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명 :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Gangwon Forestry Expo 2022)· 주제 :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기간 : 2022. 5. 4. ~ 6. 5.(33일간)· 장소 : 고성군 토성면 인릉리(강원도 세계챔버리수련장 일원)· 면적 : 1,218,597㎡(주행사장 491,983, 부행사장 726,614)· 소요예산 : 297억원(국비 89, 지방비 134, 수익사업 74)· 주최/주관 : 강원도 / (가칭)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주무부처 : 산림청· 주요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관 운영 : 7개관(주제관 1, 부제관 6), 모험전망대- 산림미래관(주제관), 산림&평화관, 산림문화유산관, 4차산업관, 국제교류관, 산림휴양치유관, 산림산업관- 고성을 주 개최지로 한 연계상생(금강~설악권) 프로그램 운영- 전시·힐링·체험ZONE 운영 : 4개소(속초, 인제, 고성, 양양)- 프로그램 구성(62) : 행사(20), 학술행사(7), 체험(9), 이벤트(9), 관광(17)	

■ 2022 하동세계차(茶) 엑스포

- 경남의 차(茶) 산업발전과 문화진흥을 위한 “2022 하동세계차(茶) 엑스포”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국제행사 승인 (20.7.30)
-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라는 주제로 국비 45억 원을 포함 총 1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제관을 비롯한 수출 홍보관 등의 10개 전시관을 운영. 월드티포럼 개최, 세계다인敩류의 밤, 왕의 녹차 진상식 등 120개 프로그램 운영
- 엑스포 개최를 통한 생산유발 1,892억 원, 부가가치유발 753억 원, 일자리창출 2,636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2022 하동세계차(茶) 엑스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명/주제 :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 기간 : 2022. 5. 5 ~ 6. 3(30일간)· 규모 : 약 10개국, 관람객 135만명(외국인 7만명)· 소요예산 : 156억원[국비 45(28.9%), 도비 43(27.5%), 군비 27(17.3%), 기타 41(26.3%)]· 면적 : 708,974㎡(214,464평)- 주행사장 214,568㎡, 주차장 249,856㎡, 부행사장 244,550㎡- 주최/주관 : 경상남도·하동군 /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행사내용 : 10개 전시관, 8개 유형, 120개 프로그램- 10개 전시관 : 산업관, 천년관, 확장관, 국내관, 국제관, 웰니스관, 스포츠체험관, 유산관, 수출홍보관, 영상관- 8개 유형 : 전시, 공연, 이벤트, 체험, 교육, 식음료, 컨벤션, 관광- 120개 프로그램 : 세계 차의 역사 VR, 티 푸드 워크, 경연대회, 다례 등  <p>The image shows a detailed aerial rendering of the 2022 Hado World Tea Expo site. It features a large circular stadium at the center, surrounded by various exhibition buildings and green spaces. A large banner with the expo's name is visible. The site is set against a backdrop of hills and mountains. Below the map, there is a legend with Korean text and symbols corresponding to different parts of the site.</p> <table border="1"><tr><td>● 입구시설 계단</td><td>● 충구(축구) 경기장</td><td>● 매표소</td><td>● 만화관</td></tr><tr><td>● 소부대 및 풍물마켓</td><td>● 인연한지 주제관</td><td>● 전시관(국제주제관)</td><td>● 하동한지제주제관</td></tr><tr><td>● 국내관</td><td>● 벌스온천스포츠체험관</td><td>● 드림 티마켓</td><td>● 유산관</td></tr><tr><td>● 차체험관</td><td>● 수출증명면허증관</td><td>● 유수당</td><td>● 차관</td></tr><tr><td>● 차박관</td><td>● 차박기</td><td>● 차문화</td><td>● 차체험관</td></tr><tr><td>● 차박장</td><td>● 차박터미널</td><td>● 차문화 체험관</td><td>● 차박 풍·소방체험관</td></tr><tr><td>● 주차장</td><td>● 차박구</td><td>● 차박자전거관</td><td>● 차박 헬기체험관</td></tr></table>	● 입구시설 계단	● 충구(축구) 경기장	● 매표소	● 만화관	● 소부대 및 풍물마켓	● 인연한지 주제관	● 전시관(국제주제관)	● 하동한지제주제관	● 국내관	● 벌스온천스포츠체험관	● 드림 티마켓	● 유산관	● 차체험관	● 수출증명면허증관	● 유수당	● 차관	● 차박관	● 차박기	● 차문화	● 차체험관	● 차박장	● 차박터미널	● 차문화 체험관	● 차박 풍·소방체험관	● 주차장	● 차박구	● 차박자전거관	● 차박 헬기체험관	
● 입구시설 계단	● 충구(축구) 경기장	● 매표소	● 만화관																										
● 소부대 및 풍물마켓	● 인연한지 주제관	● 전시관(국제주제관)	● 하동한지제주제관																										
● 국내관	● 벌스온천스포츠체험관	● 드림 티마켓	● 유산관																										
● 차체험관	● 수출증명면허증관	● 유수당	● 차관																										
● 차박관	● 차박기	● 차문화	● 차체험관																										
● 차박장	● 차박터미널	● 차문화 체험관	● 차박 풍·소방체험관																										
● 주차장	● 차박구	● 차박자전거관	● 차박 헬기체험관																										

■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 순천시는 2013년 개최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2023년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공인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심 전역으로 박람회장을 확장하자’, ‘생활 속으로 들어가자’, ‘시민이 주체가 되자’로 3대 콘셉트를 설정하고 봉화산, 연향뜰 등에 중급 정원을 조성할 계획
- 기존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조성했던 정원규모를 도시전역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박람회를 목표로 설정
- 죽도봉공원~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생태로드를 조성하는 등 각종 공원 조성을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 효과 도모 기대
- 박람회를 통한 연간 편의 2,600억 원, 전국 기준 생산유발 1조 5,926억 원, 부가가치 7,156억 원, 취업유발 25,149명 추정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2023.4.22.~10.22(6개월간)· 장소 : 순천만 국가정원 및 도심일원(죽도봉 공원, 동천변 일대 저류지공원, 신대지구, 순천만 문학관, 무진길)· 주제어/부주제어 : 정원에 삽니다 / 나만의 정원· 참가규모 : 800만명(내국인 768만명, 외국인 32만명)· 사업내용 : 5대 자연정원 조성(숲정원, 마을정원, 습지정원, 해안정원, 국가정원리뉴얼)· 공인 : 정부승인(기획재정부), AIPH승인(국제원예생산자협회)· 주최 : 산림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 대전 UCLG 세계총회

-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세계 총회 국제행사로 승인('20.7)
- 세계총회는 '22.10.3~7일 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평화구축,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지방민주주의 및 분권화를 주제로 개막 행사와 본 회의, 전시·박람회 등을 개최
- 행사 개최 시 5,000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 대전지역 생산유발효과 약 384억 원, 소득유발효과 약 76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253명 등의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				
구분	연도	도시	기간	주제
1회	2004	프랑스, 파리	-	Cities, local governments: the future for development
2회	2007	한국, 제주	'07.5.10.~ 5.13.	Changing cities are driving our world
3회	2010	멕시코, 멕시코시티	'10.11.16.~ 11.20.	The City of 2030
4회	2013	아프리카, 라바트(모로코)	'13.10.1.~ 10.4.	Imagine Society, Build Democracy
5회	2016	콜롬비아, 보고타	'16.10.12.~ 10.15.	Local voices for a better world
6회	2019	남아공, 더반	'19.11.11.~ 11.15.	Mayors of the Future

■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 충청북도, 괴산군, IFOAM(유기농업운동연맹) 공동 추진한 엑스포가 국제행사로 기획재정부 승인('20.12)
- 괴산군은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그린오션시장(친환경가치를 경쟁요소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대비하고자 함
 - 괴산군은 한살림, 흙살림, 아이쿱생협, 풀무원로하스연수원 등이 소재한 국내 유기농 중심지
- 엑스포는 총사업비 128억(국비 38.4억, 지방비 57.6억, 민자 32억), 관람객 72만명을 목표로 주제전시관, 유기농국제협력관, 국제유기농식품관, 유기농치유관, 학술행사, 체험 공연 등을 추진
- ❖ 개최 효과 : 1,722억원(생산유발 1,188, 부가가치유발 534)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 행사명 :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 주제 :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
- 기간 : 2022. 9. 30. ~ 10. 16.(17일간)
- 장소 : 괴산군 동진천 유기농 엑스포공원 일원
- 소요예산 : 128억(국비 38.4억, 지방비 57.6억, 민자 32억)
- 주최 : 충청북도, 괴산군, IFOAM(유기농업운동연맹)
- 참여규모 : 관람객 72만 명 목표
-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당시 국내외 264개 단체 및 기업 참가, 66만 명 방문
- 주요내용
- 행사장 프로그램 : 유기농산업 주제전시, 유기농산업진흥전시, 유기농체험학습프로그램, 문화·엔터테인먼트행사, 학술행사, 이벤트 등
- 산업전시 프로그램 : ALGOA 국제 협력관, 유기농식품관, 유기자재·사료 및 펫 케어 산업관, 유기농 헬스케어 산업관 등



다. 국제경기대회 유치현황

■ 2024 대구세계마스터스 육상경기대회

- 대구시 “2024 세계마스터스 실외 육상경기대회”가 기획재정부 국제 행사심사위원회 통과(‘20.7)됨에 따라 국가행사로 탄력을 받고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 국내 실사를 거쳐 ‘21년 7월 핀란드 텁페레대회 세계마스터스육상 연맹 총회에서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
- 지난 2017년 대구에서 열린 2017세계마스터스실내육상경기대회의 경우 생산유발 449억원, 부가가치유발 177억원, 고용유발 484명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였음
- 실외육상대회는 실내육상대회의 약 1.5배정도 규모가 큰 것을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
 - 2024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의 편익은 직접편익 8.28억원, 간접편익 53.92억원으로 분석(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4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 대회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2019. 6월)
- 대회규모(안) : 90개국 7,000여명(선수, 임원 등), 35종목

『World Masters Athletics Championships』	
·	35세 이상의 마스터스 선수가 참여하는 세계육상대회로 1975년 캐나다 토론토 첫 개최, 2018년 스페인 말라가대회까지 23회 개최
-	아시아1회(일본), 미주7회, 유럽10회, 오세아니아4회, 아프리카1회
-	격년으로 실외대회와 실내대회를 개최
-	실내대회는 2004년 독일 진델핑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
·	유치신청은 대회개최 5년 전에 실시
·	2024 대구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개요(안)
-	장소 : 대구스타디움/보조경기장 및 주변도로
-	종목 : 35종목(트랙 18, 필드 11, 로드 6/남여 동일)
-	규모 : 90개국 7,000여명(선수, 임원 등)
-	예산 : 총 53.8억원(국비 16.2억, 시비 29.3억, 기타 8.3억)

■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 청소년올림픽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연대 및 교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창설한 대회로 2010년 제1회 대회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 본 대회는 동하계 대회가 4년 주기로 개최되며, 강원도는 제13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2020년 1월 10일, 스위스 로잔)에서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
 - 동계올림픽은 2020년까지 3번 연속으로 유럽에서 개최되었으나 이번 4회 대회가 강원도로 선정되며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임
- 이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출범(2020년 9월)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준비를 시작
- 대회규모(안) : 70여개국, 2600여명(선수, 임원 등), 7종목

『청소년올림픽대회(Youth Olympic Games)』				
구분	연도	도시	기간	종목 / 선수 참가 규모
1회	2012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12.1.13.~1.22. (10일)	7개 종목, 15개 세부종목 (메달 63개) / 69개국 1,022명
2회	2016	노르웨이, 릴레헴메르	'16.2.12.~2.21. (10일)	7개 종목, 15개 세부종목 (메달 70개) / 71개국 1,067명
3회	2020	스위스, 로잔	'20.1.9.~1.22. (14일)	8개 종목, 16개 세부종목 / 70여 개국, 1,880여명

■ 2021 창원 월드컵사격대회, 2022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 창원시는 국제사격연맹(ISSF)에서 주관하는 국제사격대회인 ‘2021 월드컵 사격대회’와 ‘2022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의 유치에 성공 (2020년 9월 3일, ISSF 집행위원회 영상회의를 통해 결정)
- 창원시는 2년 연속 국제사격대회의 유치로 생산유발 47억, 부가가치유발 21억, 고용유발 73명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한편, 창원은 아시아사격연맹에서 주관하는 ‘2023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도 유치함에 따라 3년 연속 대규모 국제사격대회 개최
 - ‘2023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는 ‘2024파리올림픽’출전권이 걸린 대회로 35개국, 1,500여명(선수, 임원 등)이 참여

『ISSF 월드컵 사격대회』

- 주관 : 국제사격연맹 (ISFF) –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으로, 올림픽 사격 종목 총괄
- 규모 : 60여개국, 500여명(2019 월드컵사격대회 창원개최 기준)
- 개최주기 : 매년 개최되며 1년에 네 번 개최
- 올림픽이 열리는 해의 연초에는 올림픽 사전행사로 올림픽 개최지에서 대회 개최
- 대회종목 : 올림픽 정식 종목
- 올림픽 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대회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만 구성
-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사격종목
 - ❖ 남자부 : 10m 공기권총, 25m 속사권총, 10m 공기소총, 50m 소총 3자세, 트랩, 스키트 등
 - ❖ 여자부 : 10m 공기권총, 25m 권총, 10m 공기소총, 50m 소총 3자세, 트랩, 스키트
 - ❖ 혼성부 : 공기권총, 공기소총, 트랩
- 월드컵 대회 개최지역은 총 4회 중 2회는 뮌헨과 밀라노, 나머지 2회는 유럽 외 지역(포트베닝,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 창원, 시드니)에서 주로 개최

종목	월드컵 개최지	월드컵 파이널
트랩, 스키트	멕시코(아카풀코), 아랍에미리트(알아인), 한국(창원), 판란드(라티)	아랍에미리트 (알아인)
소총, 권총	중국(베이징), 독일(뮌헨), 인도(뉴델리), 브라질(리오데자네이루)	중국(푸티안)

- ❖ 월드컵파이널 : 당해 열린 월드컵 대회 선수 중 상위 8명, 최근 올림픽 우승자, 전년도 월드컵 파이널 우승자 등 참여

라. 국제행사 유치 및 승인 추진 동향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 충청권 4개 도시(대전, 세종, 충북, 충남)는 “2030 아시안 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무산에 따른 후속대안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 공동유치를 추진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전세계 대학생들이 스포츠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대회로,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광주에서 개최되었음
- 추진 현황
 -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20.7.10.) 및 실무 T/F팀 1차 회의('20.7.30.)
 - 충청권 공동유치 시도지사 간담회('20.9.18.): 유치추진단 구성운영* 합의
 - FISU집행위 화상회의 시 충청권 유치의향 전달('20.10.8)
 - 유치추진단 조직협의: 단장, 과장, 4개팀 인력 확보(22명/ 시도별 5~6명)
 - 기본계획수립용역(2019.12.10.~2020.11.2.)/사전타당성조사용역 (2019.9.24.~2020.12.11.)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 (FISU)· 규모 : 150여개국, 1만 5천여명 (2015 광주U대회 : 147개국, 1만 2천여명 참가)· 개최주기 : 2년마다 홀수 해 개최(기간: 7~8월중 약 12일)· 소요예산 : 약 8,000억원(2027년 개최 시 추정예산)· 대회종목 : 정식종목 13개*, 선택종목 (7~8종목, 개최도시 선정)- 유치시 종목배정(안) : 21종목(필수* 15, 선택** 6) ▶ (세종) 육상, 탁구, 수구, 골프(4종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 축구, 조정, 골프, 요트, 비치발리볼, e스포츠· 개최현황 : '15년(광주)>'17년(대만, 타이페이)> '19년(이탈리아, 나폴리)>'21년 예정(중국 청두) ▶ '23년 예정(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25년 개최지 선정 심의 중(~'21년)>2027년, 2029년 개최지 미정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 전남도와 여수시는 공동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21년도에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목표로 추진
 - ❖ 2021년 2월 국제행사 심사대상 선정, 타당성 조사 후 최종 국제행사 승인 목표로 추진(7월)
- 행시장소는 돌산 진모지구, 금오도와 개도 등을 중심으로 운영 계획이며, 주제관을 비롯해 부제관, 공동관, 섬마켓관, 섬놀이터 등의 조성 계획
- 사업비는 총 240억원(국비 72억원)으로 4,000억의 생산효과 및 6,000명의 취업유발 효과 추정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최 : 전라남도, 여수시 공동개최· 주제 :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개최기간 : 2026.7.17.~8.16.(1개월)· 개최장소 : 주행사장–돌산 진모지구 중심, 부행사장–금오도, 개도· 규모 : 관람객 200만 명 목표· 소요예산 : 240억(국비 72억, 도비 36억원, 시비 36억원, 사업수입 96억원)· 경제파급효과 : 약 4천억원 생산효과, 6천여명 취업유발효과· 주요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관) 주제관, 부제관 3동(섬미래관, 섬문화관, 섬생태관), 공동관, 섬마켓관, 섬살림문화관, 해상교량박물관 등- (행사 및 컨벤션) 사전행사, 개폐회식, 국가지자체 스페셜데이, 국제학술대회 등- (문화체험행사) 문화공연, 해양레저체험, 전시회, 연륙연도교 투어, 명품힐링 섬 팀방프로그램, 섬 놀이터 등	 

3 장

전라북도 국제행사 구상(안)

-
1. 국제행사 발굴절차
 2. 엑스포박람회 구상(안)
 3. 국제경기대회 구상(안)
 4. 국제기구 : FAO 세계농업대학

제3장 전라북도 국제행사 구상(안)

1. 국제행사 발굴절차

- 전라북도는 2017년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이래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여 도민의 자존감 및 자긍심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5년 제33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이후의 국제행사는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2023년 이후 추진 할 전라북도 국제행사를 발굴하기 위해 실행되는 과제로써 실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국제행사를 발굴하기 위해 기 추진된 전라북도 국제행사 현황분석, 국제행사 관련 동향조사 및 세부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함

■ 문헌연구 및 국제행사 유치 동향 파악

- 국제행사의 범위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다양함(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국제행사 현황분석결과 기존의 전라북도 국제행사는 체육행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제행사는 전시회,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원예박람회, 기구총회, 학술회의 등의 다양한 대상 범위가 있는 만큼 각 대상을 범위로 가능성 있는 국제행사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조사됨

■ 전문가 자문 : 국제행사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국내 국제행사 동향 및 전라북도 국제행사 현황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라북도 국제행사 대상범위를 국가박람회 및 국제경기 대회,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발굴하는 것이 제안됨
 - (박람회 및 전시회)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로 높아진 새만금의 인지도와 연관산업 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대규모 국가 주도의 박람회(엑스포) 유치
 - (국제경기대회) 국내에 국제경기대회가 아태마스터스, 2024 대구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이 유치되어 국가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유치 가능한 국제경기대회 검토
 - (국제기구) 기존의 국제기구 총회, 국제기구의 신설·유치 등 종합적 검토

■ 지자체 담당부서 협의 : 중점 발굴 분야 논의

- 전라북도 대도약 사업과 연관된 중·대규모 행사 및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하기로 논의함
- 더불어 원활한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국제행사 중점 유치 대상을 국제기구 또는 국가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논의함

■ 전문가 자문 : 발굴 사업별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문헌연구, 국제행사 유치동향, 국제행사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조사, 지자체 담당부서 협의를 통해 발굴된 분야별(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국제기구)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 분야별로 박람회 및 전시회 3건, 국제경기대회 4건, 국제기구 1건의

사업이 제안됨. 제안사업 중 유치여건 및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과제 중 일부과제는 채택, 여타과제는 재 발굴 필요성이 논의됨

- (박람회 및 전시회) 새만금 국제 정원 박람회, 국제뉴딜엑스포, 세계고인돌 박람회
- (국제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남자대회/여자대회), 피파여자 월드컵 대회
- (국제기구) FAO 세계농업대학

○ 아이디어 차원에서 콘텐츠만 제안되었던 내용들 중 스타트업 전시회, 생태문명 엑스포, 세계직장인 올림픽대회, 하계월드마스터스대회 등은 국제행사 유치 동향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방향성을 확장 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안됨

■ 과제 제안

- 문현연구 및 국제행사 유치 동향, 국제행사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지자체 담당부서 협의, 발굴 사업별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박람회 및 전시회 분야 4개, 국제경기대회 5개, 국제기구 1개 총 3개 분야 10개 과제임
 - (박람회 및 전시회) 한국판 뉴딜 엑스포, 새만금 세계스타트업(창업) 전시엑스포, 새만금 국제 정원 박람회, 세계 생태문명 엑스포
 - (국제경기대회) 세계직장인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세계경찰 소방관 경기대회(WPFG: World Police and Fire Games),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 여자대회), 하계월드마스터스대회
 - (국제기구) FAO 세계농업대학

2. 엑스포·박람회 구상(안)

가. 한국판 뉴딜 엑스포

■ 배경

-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를 발표하여 약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58.2조원), 그린뉴딜(73.4조원), 안전망 강화(28.4조원), 지역균형 뉴딜 등을 추진. 미래 국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대규모 사업
-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국민들에게 한국판 뉴딜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전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정책적 필요성 부상
- 따라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뉴딜 정책의 사례를 공유, 비즈니스를 촉진할 수 있는 국제 엑스포를 추진 필요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2028 새만금엑스포 유치(소재부품장비)]

- 더불어 민주당 전북 총선공약으로 2028 새만금 엑스포 유치를 선정('20.3)
- 새만금사업지구내 대규모 국제행사를 국책사업, 600만명 규모로 추진
- 제20대 대통령 국책사업 공약 추진

■ 세계 3대 IT 박람회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박람회로 추진

- 한국판 뉴딜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보여주는 대규모 행사로 세계 3대 IT 박람회를 넘는 세계인 및 글로벌 기업 등의 관심이 촉진시키는 지속가능한 국가단위의 박람회로 추진
- 세계 3대 IT 박람회
 - (국제가전 박람회, IFA) 독일 베를린에서 매년 9월초에 개최되며, 약 1,8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24만명이 참관함. 전시분야는 가전제품, 3D프린터, 스피커, 드론, 스마트폰 등
 -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미국拉斯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초에 개최되며, 약 3,8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약 16만 5,000명이 참관하는 행사임. 주요 전시분야는 자율주행차, 헬스& 바이오테크, 로봇, 센서, 인공지능(AI)등이며 디지털 시장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
 - (모바일월드콩크래스, MWC)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에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약 2,3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10만 8,000명이 참관함. 주요 전시분야는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VR/AR, 로봇 등



[모바일 월드 콩그래스(MWC)]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국제가전박람회(IF)]

■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판뉴딜엑스포
- 사업대상지 : 새만금 일원
- 개최목표 연도 : 2026년
 -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상 '21~'22년까지 디딤돌 마련기로서 제도개선, 재정 및 민간 자본이 투자된 시기이고 실질적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성장 전략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임. 따라서 엑스포 준비기를 거쳐 2026년에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 개최 확정 목표연도 : 2023년
 - 중앙정부 및 민주당 등과 사전협의, 기본계획서 및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국가사업 최종 확정을 2023년도까지 추진
 - 전라북도 사업계획 확정,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정부 협의(2021년)→대선공약으로 추진(2022년)→ 한국판 뉴딜 엑스포 국가사업 확정(2023년)
- 사업비 : 1,500억(국비)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디지털 뉴딜관, 그린뉴딜관, 융복합관, 지역균형뉴딜관
 - 부대시설 : 기업관, 영상관, 체험관, 지원시설, 편의시설

〈표 3-1〉 주요 도입시설(안)

기능	주요활동	도입시설
교양문화	전시체험	· 디지털뉴딜관, 그린뉴딜관, 융복합관, 지역균형 뉴딜관
기업활동	비즈니스 및 행사참여	· 국가관(외국가관, 지자체관 등), 기업관, 커뮤니센터, 이벤트플라자, 영상관, 다목적 회의관
관람	문화시설 감상	· 주제공원, 전망시설, 문화체험관
휴양	쇼핑, 휴식	· 상업시설, 편의시설, 식당가 등
위락	스포츠, 놀이	· 레저시설, 어뮤즈먼트파크, 다목적 공연장, 공원, 광장, 도시숲 등
지원	의료, 관리	· 관리지원시설, 의료시설, 치안 및 방범, 소방시설 등 · 종합안내센터, 휴게공간,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시설

■ 주요 도입시설별 세부 주제관(안)

○ 그런 뉴딜관

세부 주제관	세부 전시 내용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스마트그린도시, 도시숲,스마트상하수도, 스마트 먹는물 관리
저탄소분산형 에너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마트전력망, 친환경발전시스템풍력·태양광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녹색산업 혁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녹색기업, 녹색산업, 스마트그린산단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저감, 자원순환촉진, 녹색금융

○ 디지털 뉴딜관

세부 주제관	세부 전시 내용
D-N-A 뉴딜생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빅데이터 플랫폼 전시, 인공지능 학습5G융합관(실감콘텐츠 전시, 스마트박물관,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AI 활용관(스마트공장, 인공지능홈서비스, 의료영상 등)지능형정부관(국가망,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등)케이-사이버(K-Cyber) 방역체계 전시
교육인프라 디지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온라인 교육플랫폼 전시미래교육센터, K-MOOC,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이러닝, VR, AR 콘텐츠 개발
비대면 산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디지털 및 인공지능 돌봄 전시원격근무시스템 구축, 공동활용 화상회의시스템, 보안 및 업무관리소 프트웨어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전시
사회간접자본 디지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차세대교통시스템, 철로사물인터넷, 디지털 국가여행 관리시스템디지털트윈(정밀도로지도, 3차원지도, 지하공동구 계측기 설치, 항만 디지털플랫폼수자원 및 관리댐 원격제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침수위험 알리시스템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시스템 전시육상·해운·유통 물류 디지털 시스템

■ 개최지로서 전라북도의 적합성

○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중심지

- 전라북도 새만금은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의 1번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추진

○ 국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선도 지역

-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등 국가 핵심사업이 시행되는 선도 지역

○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조성 등 민간투자 촉진 지역으로 성장

- 새만금은 미래 창업클러스터(협력지구)와 데이터센터 구축 등 2조 1천억 원 규모의 직접투자로 370여개의 기업유치와 2만여 명의 누적 고용창출, 20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미래의 성장 가능 지역

■ 기대효과

○ 국가의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한국판 뉴딜 엑스포 개최로 한국의 뉴딜 정책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전시하고 관람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 확대 및 성과 확산의 기회 제공

○ 새만금이 한국판 뉴딜 성장 핵심 지역으로 이미지 형성

-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래의 뉴딜 정책 및 사업, 기업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래의 성장동력기반 구축 가능

○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엑스포의 연례적 국가행사로 효용성 확대

- 한국판 뉴딜 엑스포 개최를 통해 시설물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도시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뉴딜 엑스포를 연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성장 및 발전 과정을 전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 및 상품 등이 교류 될 수 있는 기회 공간으로 활용

나. 새만금 세계스타트업(창업)전시엑스포

■ 배경

- 새만금은 미래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래 창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 창업가 등이 참여하여 창업 제품을 전시하고 세일즈가 이루어지는 “새만금 세계스타트업(창업)전시엑스포”를 개최
- “새만금 세계스타트업(창업)전시엑스포” 개최는 세계 미래 창업 환경을 조망하고, 신규 창업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업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장(場)을 조성
-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 재생에너지, 농식품, 탄소산업 등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형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새만금에 조성된 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 인프라 신규 구축 및 동부권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균형 있고 미래가 있는 도시 구조를 형성할 기회
- “새만금 세계스타트업(창업)전시엑스포” 개최 추진을 위해 Kotra GEP(Global Exhibition Platform, 글로벌 전시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SK, 삼성, LG 등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창업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엑스포 추진

■ 유사사례 1 : 스타트업 컨퍼런스 슬러시(Slush)

- 슬러시(Slush)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 언론인 등이 모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함
- 행사개요
 - 명칭 : 슬러시 창업 컨퍼런스(SLUSH)
 - 개최기간 : 2019년 11월 27일 ~ 28일
 - 연혁 : 2008년부터 개최
 - 규모 / 참가업체 및 참관객 수 : 약 110개국 / 약 4,000개사, 약 25,000명
 - 전시분야 : 게임, 기술, 에너지 등
 - 한국관 참가현황 : 30개사
- 전시관 구성 및 주요 프로그램
 - 2019년의 경우, 슬러시가 개최되는 주에 200여개의 사이드 이벤트 진행
 - 개최 기간에는 전시관 내 3개 스테이지, 2개 스튜디오, 투자자 라운지, 150 여개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유사사례 2 : Come Up

- Come Up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해외스타트업의 국내진 출을 도모
- 한국 창업 생태계를 세계에 소개, 해외 창업생태계와의 교류 및 협 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인 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함
- 행사개요
 - 명칭 : GLOBAL STARTUP FESTIVAL COMEUP 2020
 - 개최기간 : 2020년 11월 19일 ~ 21일
 - 행사장소 : 온라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행사 개최
 - 주관/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COMEUP 2020 조직위원회, 창업진흥원
 - 참가대상 :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 생태계 관계자 등
 - 2019 행사규모 : (스타트업) 4,900기관, (투자자) 650명, (참가자) 21,000명
 -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 전시관 구성 및 주요 프로그램
 - MAIN CONFERENCE : 컴업 행사의 3대 주제 ‘Social System’, ‘Work’, ‘Life’를 바탕으로 한 12개 세부 세션에 대한 강연 및 패널 토크
 - SPECIAL EVENT :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행사
 - SIDE EVENT : 온라인 투자&수출 상담회, 선후배 스타트업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이벤트

〈표 3-2〉 GLOBAL STARTUP FESTIVAL COMEUP 2020 스페셜 이벤트

행사명	요약소개
인공지능(AI) 챔피언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인공지능(AI) 챔피언십 - 프로그램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경진대회, 부대행사(레이싱, 축구, 게임 알고리즘 대회) 등
재도전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기를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재도전 문화확산을 위한 재도전의 날 - 프로그램 : 재도전 기념식, 사례발표, 재도전 데모데이, 토크콘서트 등
그랜드 챌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국내 스타트업들과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 지원 - 프로그램 : 해외 스타트업 대상 데모데이 및 시상식
도전! K-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규모의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 프로그램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비즈쿨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청소년 기업가정신 축제!(부제 : 랜선타고 같이 UP 가치 UP) - 프로그램 : 개막식, 토크콘서트, COMEUP BizCool, 비즈쿨 라이브 등
청청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청년을 이끄는 콘테스트 ‘청청콘’ - 프로그램 : 비대면분야 24개팀을 선배청년 스타트업과 국민심사단이 함께 평가하는 파이널 피칭
창구 데모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으로 세상을 바꾼다! ‘창구 시즌2’ 기업들의 열띤 피칭 - 슬로건 : 세상을 바꿀 1CM - 프로그램 : 스타트업 IR, 전문가 코칭 등

자료 : <https://www.kcomeup.com>

○ 사업개요

- 사업명 : 새만금 세계스타트업(창업)전시 엑스포
- 사업대상지 : 새만금 일원
- 개최목표 : 2027년
- 행사주체 : 전라북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 투자기관 :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등

■ 기대효과

○ 새만금 스타트업 창업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클러스터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 새만금의 창업 관련 기업의 집적화 및 대기업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금융 관련 기관 등이 입주하여 미래의 벤처창업투자 촉진 지역으로 성장
-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신도시 형성 및 인구유입 등이 증가

다. 새만금 국제정원 박람회

■ 배경

- 새만금을 중심으로 그린 인프라 투자와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 시기에 맞게 국제원예생산자조합(AIPH)가 시행하는 국제규모의 정원박람회를 유치하여 지역자원의 활용 극대화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e Producers)가 1년마다 정원, 원예 등과 관련된 박람회를 결정하여 추진
 - ❖ 국제원예생산자조합 : 원예, 식물 및 조경분야 박람회만 승인하는 국제기구로 28개국 37기관(한국)이 가입된 기구로 정원, 식물, 조경 등을 통해 인류, 기술 및 자연이 건강하고 안정된 균형잡힌 세상을 추구
- AIPH 위원회가 승인하고 관리하는 원예박람회의 등급은 A1(세계원예박람회, World Horticultural Exhibition), B(국제원예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al Exhibition), C(국제원예축제, International Horticultural Show), D(국제원예무역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al Trade Exhibition)으로 구분함
- 지금까지 A1(대형국제원예박람회, 2년 다른 나라)과 B1(해외참가원예박람회, 10년 이후 같은 나라 추진 가능) 박람회가 개최

■ 원예정원박람회 개최 현황

- AIPH 인정 원예 박람회는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B), 2009년 안면도 꽃박람회(B),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B), 2014년 칭다오원예 박람회(B), 2019년 베이징원예박람회(A1)가 개최
- 개최 예정 국제원예박람회는 2021년 도하원예박람회(A1), 2022년 알메리원예박람회(A1), 2023년 순천정원박람회(B) 등이 개최 예정임(10년만에 재개최)



[순천만정원박람회]



[안면도꽃박람회]

〈표 3-3〉 개최현황

구분	대형 국제원예 박람회(A1)	해외 참가 원예 박람회(B1)
주제	· 정원, 원예, 식물	· 정원, 원예, 식물
참여주체	· 도시, 지방정부	· 도시, 지방정부
개최간격	· 1년	· 1년
2년마다 다른 국가	· 10년 이후 동일 국가 추진 가능	· 상업시설, 편의시설, 식당가 등
비용분담	· 주최국 부담	· 주최국 부담
개최현황	· 2019 베이징원예박람회(A1) · 2021 도하(카타르)원예박람회(A1) · 2022 알메리(네덜란드)원예박람회(A1)	· 2002 안면도 꽃박람회(B) · 2013 순천정원박람회(B) · 2014 칭다오원예박람회(B) · 2023 순천정원박람회(B)
전라북도 개최여건	· 2028년 전북 유치(A1)	· 2033년 전북 유치(B)

■ 사업개요

- 사업명 : 새만금 국제정원박람회
- 주최 : 전라북도·국제원예생산자조합(AIPH)
- 개최장소 : 새만금 일원
- 개최목표연도 : 2033년
- 내용 :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국제정원박람회
- 사업비 : 2,500억원
 -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 2,217억원(국비 817억원)

■ 개최 여건

-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립 새만금수목원이 2026년까지 계획, 설계 및 시공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1,530억원)되고, 조성 규모는 150.6ha로 해안식물원, 새만금이야기원, 수생태식물원, 새만금방풍림 등이 조성 예정
 - ❖ 새만금수목원 조성과 더불어 2017년 부안 수생정원 조성사업(2020년 완공), 2018년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2021년 완공)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에는 남원 합파우 지방정원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어 연계하여 정원박람회 유치 가능
- AIPH가 인정한 원예정원박람회는 새만금 수목원 등이 조성된 이후인 2028년 이후에 준비하여, 해외 참가 원예박람회(B)를 2033년 추진

라. 세계 생태문명 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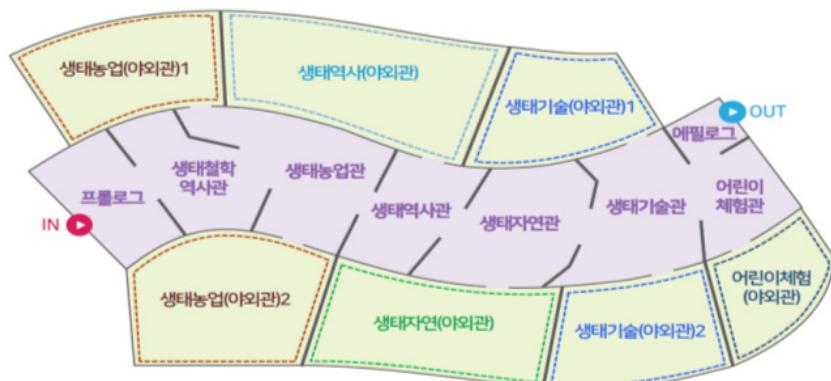
■ 배경

- 전북은 지지체 최초로 2021년 도정 정책 패러다임을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으로 선정하여 도정 운영 등에 반영하여, 생태와 문명의 새로운 전환의 방향을 도모
- 생태문명 패러다임은 유엔총회, 중국 등을 비롯하여 세계학자들 참여와 공감이 확산되고 있음
 - 유엔총회(2000), 지구환경에서 생태문명 원리 명시; 중국(2007년)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정책으로 채택; 클레어몬트 국제컨퍼런스(2015년)에서 생태문명을 주제로 토론; 세계종교회의(2015년) 생태문명 규정
- 정부도 생태문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19.9.30)
 - 2020 한국생태문명회의 개최('20.11), 생명생활·생산 전환을 위한 사고와 행동
- 따라서 “세계 생태문명 엑스포”를 개최하여 문명의 생태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실천 활동, 혁신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생태문명 공유의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문명의 전환을 선도

■ 사업개요

- 사업명 : “전북 세계생태문명 엑스포”
- 개최 연도 : 2024년 또는 2025년
(국제행사 개최 승인 연도 : 2022 또는 2023년)

- 사업비 : 300억
- 개최장소 : 진안 등 동부권 일원
- 주요시설 : 생태문명 테마전시관, 생태농업관, 생태자연관, 생태기술관, 생태정원, 생태문명 다목적홀 등



자료: 생태문명원 구축 기본구상(2020), 전라북도·전북연구원

■ 개최여건

- 전라북도는 생태문명의 전환을 최초로 도정 정책의 전환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지역사회의 회복력 및 국가적인 문명의 전환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전라북도는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삼락농정’, ‘생생마을’, ‘생태관광’, ‘도농융합상생문명’,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 문명 시대에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정책혁신 (policy innovation) 및 정책진화(policy evolution)를 추진하여 왔음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진안군 백운면 산1번지 일원
- 사업비 : 827억원(국비 662, 지방비 165)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업내용
 - 체류형 산림치유 공간 조성 및 산림치유인자 유지 · 증진
 - 지역농산물, 임산물을 활용한 치유식 개발 보급

-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세계생태문명엑스포”를 개최 조건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고, 세계적인 생태문명의 사례 공유 및 생태문명회의 등을 통해 체험 및 전시 기회 확대 가능
- “세계생태문명엑스포”는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전 세계 국가 및 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각 국가의 생태문명의 콘텐츠를 전시, 체험, 교육, 실험, 연구 등의 융합, 구현해나가는 체험·힐링·혁신이 공유·순환되는 창의적인 국제행사가 될 것임

3. 국제경기대회 구상(안)

가. 2023년 세계직장인 올림픽대회

■ 배경

- 대한직장인체육회의 주관으로 “2023년 제8회 세계직장인올림픽(WSG, World Sports Game)”의 한국 유치를 최종 확정(‘20.9.22)
 - 세계직장인올림픽은 2년마다 개최
- 현재 한국 유치만 확정되었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유치의향서 등을 통해 전북 유치를 추진
- 세계직장인올림픽은 국제직장인체육연맹(CSIT, Confederation Sportive International Travailiste et Amater)이 주관하며, CSIT는 1913년 벨기에 켄트에서 설립되어, IOC가 승인한 국제경기단체로 현재 50개 회원국 4개대륙 조합(범 아메리카, 발칸반도, 아프리카, 아시아) 및 약 48개 글로벌 조직, 2억 3,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
- “2023년 세계직장인올림픽”을 전라북도로 개최할 경우 기존 시설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고, 2023년에 개최되는 아태마스터스 대회(5월 개최)와 시너지를 발현되어 긍정적인 지역발전 및 경제적 효과, 글로벌 브랜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 세계직장인올림픽
- 대회기간 : 2023.7.1.~7.6
- 참가규모 : 50개국 15,000명

- 대회종목 : 축구, 농구, 배구 등 30개 종목
- 사업비 : 500억(국비지원예정)

■ 개최 여건

-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 개최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 준비를 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될 수 있음
- 직장인올림픽 대회 종목과 아태마스터즈 대회 종목이 유사하여 기존의 체육 시설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하고, 2023년에 2개의 세계 대회가 개최되어 지역에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이 가능
 - ❖ “대한직장인체육회장(어명수)은 직장인올림픽대회와 전라북도의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연계할 경우 국제규모의 체육행사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전라북도의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함

『세계직장인올림픽 대회』 개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 2008년, 이탈리아 리미니 · 제2회 : 2010년, 에스토니아 탈린 · 제3회 : 2013년, 불가리아 바르나 · 제4회 : 2015년, 이탈리아 리그나노 · 제5회 : 2017년, 라트비아 리가 · 제6회 : 2019년, 스페인 토르토사 · 제7회 : 2021년, 이탈리아 세센타티코 및 Cervia · 제8회 : 2023년, 한국(국내 개최지 미정)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배경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만 17세~22세까지의 청소년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직업기능을 겨루는 국제 청소년 기능경기대회로 개최국은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에서 선정
- 한국은 1967년 16회 대회부터 참가하기 시작한 이후 국제기능올림피아 개최되는 30회 중 종합성적 1위 19회, 2위 5회, 3위 3회의 성적을 기록 하며 세계 최정상급의 실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기능올림피 대회의 한국개최는 2회에 불과한 상황으로 한국개최가 필요한 상황
 - 국제기능올림피 대회의 한국개최는 1978년(부산), 2001년(서울)
-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Kazan 2019)는 참가국가 및 선수는 68개국 1,355명이 참여하였고, 국제지도위원 1,303명, 통역봉사요원 392명 등이 참여
 - 개최기간 : '19.8.22~8.27(산업시찰 8.28~8.31)/1개국1교프로그램 (one school one county)/삼성전자 150만유로(약19억5천만원) 후원



- 국제기능올림피 대회 종목은 개최국의 상황과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2019년 대회 기준 56개의 종목 개최
 - 폴리메카닉스, 조작, IT네트워크시스템, 통신망분배기술, 미장, 그래픽디자인, 통합제조, 장식미술, 헬스케어, 메카트로닉스, 모바일로보틱스, 철골구조

물, 기계설계CAD, 가구, 금형, CNC 선반, 실내장식, 비쥬얼머천다이징, CNC 밀링, 목공, 프로토타입모델링, 석공예, 귀금속공예 등

〈표 3-4〉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역대 개최 현황

개최년도	회수	대회기간	개최국과 및 도시	참가국	직종 수	선수 수	우승국
1950	1		스페인(마드리드)	2	12	24	
1951	2		스페인(마드리드)	2	8	16	
1953	3		스페인(마드리드)	7	24	65	
1955	4	4.18 ~ 4.30	스페인(마드리드)	7	19	83	스페인
1956	5		스페인(마드리드)	8	28	88	
1957	6		스페인(마드리드)	8	35	128	
1958	7		벨기에(브리셀)	10	30	144	
1959	8	9.8 ~ 9.24	이태리(모대나)	9	31	150	
1960	9		스페인(바르셀로나)	7	37	173	
1961	10	7.2 ~ 7.14	독일(뒤스버그)	11	32	192	
1962	11	9.1~	스페인(기흔)	10	28	156	스페인
1963	12	7월	아일랜드(더블린)	13	32	224	일본
1964	13	7월~8월	포르투갈(리스본)	12	28	197	일본
1965	14	7.19 ~ 7.29	영국(글래스고우)	11	28	204	영국
1966	15	6.14 ~ 6.29	네덜란드(우트레흐트)	11	30	220	일본
1967	16	7.4 ~ 7.17	스페인(마드리드)	11	32	218	스페인
1968	17	7.4 ~ 7.16	스위스(베른)	14	28	249	스위스
1969	18	7.2 ~ 7.15	벨기에(브루셀)	15	28	260	일본
1970	19	11.03 ~ 11.19	일본(동경)	15	30	274	일본
1971	20	9.07 ~ 9.19	스페인(기흔)	15	31	273	일본
1973	21	7.30 ~ 8.15	독일(뮌헨)	15	33	281	서독
1975	22	9.8 ~ 9.22	스페인(마드리드)	17	31	291	스위스
1977	23	6.24 ~ 7.11	화란(유트리히트)	17	31	267	한국
1978	24	8.31 ~ 9.14	한국(부산)	14	31	239	한국
1979	25	9.2 ~ 9.17	아일랜드(코오크)	14	33	276	한국
1981	26	6.8 ~ 6.20	미국(아틀란타)	14	33	266	한국
1983	27	8.15 ~ 8.28	오스트리아(린츠)	18	32	309	한국
1985	28	10.14 ~ 10.27	일본(오사카)	18	34	307	한국
1988	29	2.7 ~ 2.24	호주(시드니)	19	34	354	한국
1989	30	8.19 ~ 9.4	영국(버밍햄)	21	34	408	한국
1991	31	6.20 ~ 7.6	네덜란드(암스텔담)	25	34	430	한국
1993	32	7.19 ~ 8.3	대만(타이페이)	25	35	425	대만
1995	33	10. 5 ~ 10.18	프랑스(리옹)	28	34	499	한국
1997	34	6.27 ~ 7.10	스위스(상갈렌)	30	37	533	한국

개최년도	회수	대회기간	개최국가 및 도시	참가국	직종 수	선수 수	우승국
1999	35	11.4 - 11.19	캐나다(몬트리올)	33	41	607	한국
2001	36	9.6 - 9.19	한국(서울)	35	39	661	한국
2003	37	6.11 - 6.26	스위스(상갈렌)	37	42	664	한국
2005	38	5. 25 - 6.1	핀란드(헬싱키)	39	39	673	스위스
2007	39	11. 8 - 11.22	일본(시즈오카)	46	47	812	한국
2009	40	8. 26 - 9.7	캐나다(캘거리)	46	45	847	한국
2011	41	9. 28 - 10.13	영국(런던)	50	46	949	한국
2013	42	6. 27 - 7. 11	독일(라이프치히)	53	46	961	한국
2015	43	8. 11 - 8. 16	브라질(상파울로)	59	50	1,192	한국
2017	44	10.14 - 10.19	UAE(아부다비)	57	51	1,242	중국
2019	45	08.22 - 08.27	러시아(카잔)	68	56	1,355	중국

■ 사업개요

- 사업명 : 전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치
- 주최 :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 대회종목 : 폴리메카닉스, 통신망분배기술, 항공정비 등 56여개 종목
- 대회규모 : 60여개국, 4,000명이상, 관람객 20만명 추정
- 사업비 : 1,000억
- 개최효과 : 파급경제효과 약 240억 추정(2001년 서울대회 당시 약 100억원)

■ 유치목표연도 : 2027년(제49회), 2023년도에 개최지 결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지는 현재 2021년 상하이('17년 선정), 2023년 프랑스 리옹('19년 선정)으로 개최지가 결정되어있음

『국제기능올림픽 개최지 및 개최 결정연도』

- 2021년(제46회) : 상하이('17년 결정)
- 2023년(제47회) : 프랑스 리옹('19년 결정)
- 2025년(제48회) : 미정 ('21년 상하이기능올림픽에서 결정 예정)
- 2027년(제49회) : 미정 ('23년 리옹 기능올림픽에서 결정 예정)

- 전라북도에서는 개최지가 미정지역인 2027년(제49회)대회의 유치를 목표로 추진계획 마련하여 도전
 - 2025년(제48회) 개최지역은 '21년 상하이에서, 2027년(제49회) 개최지역은 '23년 프랑스 리옹에서 결정될 예정
 - 전라북도는 제55회 전국기능대회의 유치경험이 있으며, 관련 산업 및 인력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존 시설등과 연계하여 대회장소로 활용이 가능

■ 개최여건

- 한국에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현재까지 총 2회 개최하였는데 1978년 24회 대회를 부산에서, 2001년 36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음
- 2001년 이후 한국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제55회 전국기능대회의 유치경험이 있고, 관련 산업 및 인력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존 시설등과 연계하여 대회장소로 활용이 가능
- 특히, 전국기능대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기능대회의 유치경험은 전북에 큰 강점으로 작용

■ 기대효과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유치한다면 전라북도의 산업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구축 할 수 있음
- 또한, 국제대회의 개최로 인해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지역의 경제활력을 도모를 기대
 - 2001년 서울국제기능올림픽은 2001년 이전 대회를 통틀어 최대규모의 대회로 개최되었고, 당시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로 인한 외화수익 효과가 900만 달러(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음(국장신문 2001)

다. 세계경찰소방관 경기대회(World Police and Fire Games)

■ 배경

- 세계경찰소방관대회는 California Police Athletic Federation이 주최하는 대회로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대회를 시작으로 홀수년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전 세계 경찰과 소방관의 스포츠 축제행사
 - 1985년 제1회부터 경찰관이 대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소방관들과 행사에 참여하여 세계 경찰소방관 올림픽의 형태로 변화
- 대회는 홀수년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개최되며 10일간 총 63개의 종목에 80개국, 16,000명이 참가함. 주최는 캘리포니아경찰연맹, 구체적인 행사추진은 개최지에서 담당
 - 2021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가 예정되었던 제19회 대회는 COVID-19로 인해 2022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이후 대회는 기존과 같이 홀수년도에 개최

- 한국은 가장 최근 대회인 2019년 제18회 대회(중국 청두 개최)에 처음으로 참가
 - 경찰청은 야구와 테니스, 주짓수 등 11개 종목에 65명의 선수단을 파견 하였으며 소방청은 최강소방관, 소방장애물넘기 등 21개 종목 33명 선수단 파견
- 세계경찰소방관 경기대회는 세계경찰소방관의 올림픽 대회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크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라북도의 경우 아태마스터게임 대회 유치 경험 및 관련 시설의 활용할 경우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행사를 유치, 추진 가능

■ 사업개요

- 대회명 : 세계경찰소방관 경기대회(World Police and Fire Games)
- 주최 : 캘리포니아경찰체육연맹
- 대회종목 : 개·폐회식, 대회운영, 경찰소방산업엑스포 등
 - 종목 : 야구, 테니스, 주짓수, 팔찌름, 소방장애물넘기 등 60여개 종목
- 대회규모 : 80여개국, 16,000명 이상
- 사업비 : 200억

■ 유치목표연도 : 2027년(2023년도 개최국가 결정)

- 2022년(제19회) 개최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2023년(제20회) 개최지는 캐나다, 2025년(제21회) 개최지는 영국
- 22회(2027년) 개최지는 미정으로, 전라북도가 유치 도전할 경우 행사 개최 국가 선정이 2023년도에 이루어지는 만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표 3-5〉 세계경찰관경기대회 개최지

회수	연도	장소	회수	연도	장소
1회	1985	미국 세너제이市	12회	2007	호주 애들레이드市
2회	1987	미국 샌디에이고市	13회	2009	캐나다 밴쿠버市
3회	1989	캐나다 밴쿠버市	14회	2011	미국 뉴욕市
4회	1991	미국 멤피스市	15회	2013	영국 벨파스트市
5회	1993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市	16회	2015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6회	1995	호주 멜버른市	17회	2017	미국 LA市
7회	1997	캐나다 캘거리市	18회	2019	중국 청두市
8회	1999	스웨덴 스톡홀름市	19회	2022	네덜란드 로테르담市(예정)
9회	2001	미국 인디애나폴리스市	20회	2023	캐나다 위니펙市(예정)
10회	2003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21회	2025	영국 버밍엄市(예정)
11회	2005	캐나다 퀘벡市	22회	2027	개최지 미정

○ 추진절차

- 세계경찰소방관대회 유치 의향서 전달 → 캘리포니아경찰체육연맹의 개최 도시 현장실사(스포츠경기장, 숙박시설 등) → 유치 프리젠테이션

■ 개최여건

- 세계경찰소방관 경기대회는 영미권에서 개최되어 지다가 지난 19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서 처음 개최됨. 중국 개최를 계기로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향후 아시아권을 개최 도시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 경찰청과 소방청은 2019년 제18회 대회 참여를 계기로 스포츠 동호회 활동 등을 장려하여 경찰소방공무원의 기초체력 증진을 도모 할 계획이며, 향후 국제대회에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제스포츠경기 참가를 적극 장려할 예정으로 국내 대회개최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 전라북도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18년 전국체전, 2019년 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대축전(COVID-19로 인해 잠정

연기),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COVID-19로 인해 2023년 개최) 까지 스포츠관련 체육행사 적극 유치

- 지속적인 스포츠관련 대규모행사 유치로 명실상부한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도내 기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한 개최가 가능한 세계경찰소방관대회를 유치함으로서 국제스포츠도시, 안전도시 전라북도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제고 필요

■ 기대효과

- 도내 기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한 대회운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스포츠관련 대규모 행사 유치로 명실상부한 국제스포츠도시로서 이미지 구축
- 안전국가, 안전도시의 국제적 이미지 획득으로 한국과 전라북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경찰소방관 직원 및 가족 등이 참여하는 가족단위 대회로 관광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유사사례 : 세계소방관경기대회(World Firefighters Games)

-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World Firefighters Games Western Australia Inc.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스포츠를 통한 세계 전현직 소방관 및 가족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격년제로 8일 동안 개최
- 199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첫 대회가 개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제11회 대구대회, 2018년 제13회 청주에서 개최
- 대회 운영본부에서 요구하는 필수 37개 종목을 제외한 다른 경기는 개최국의 여건에 따라 임의 선정할 수 있게 하여 개최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라.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Asia-Pacific Amateur Championship, AAC)

■ 배경

-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은 아시아 지역의 골프발전과 아마추어 육성을 목적으로 2009년 창설된 대회로 아시아태평양골프연합회(APGC)와 더 마스터스(The Masters), 영국왕립골프협회(The R&A)가 공동주최하는 아시아지역 최대규모의 대회임
 - 세계 4대 아마추어 대회 :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 US 아마추어 챔피언십, 유러피언 아마추어 챔피언십, 더 아마추어 챔피언십
- 대회 우승자에게는 부상으로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권을 부여하고 준우승자에게는 디오픈 예선 참가 기회 제공함
 - 아시아-태평양 골프연합회 소속 40여개 국에서 세계아마추어골프랭킹(WAGR)에 따라 상위 120여명의 선수가 출전
- 2018년부터 여자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아태평양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개최
 - 아시아태평양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는 여자 브리티시오픈과 챔피언십 등 두 개의 메이저 대회 출전권이 주어짐
 - 아시아태평양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은 싱가포르(2018년)와 일본(2019년)에서 개최
- 대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게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2009년 중국에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태국, 호주, 홍콩 등에서 개최가 되었으며 2016년 8회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함. 전라북도의 경우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수한 골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개최 여건 성숙

■ 사업개요

- 대회명 :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여자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
- 주최 : 아시아태평양골프연합회(APGC), 더 마스터스(The Masters), 영국왕립골프협회(The R&A)
- 대회구분 : 남자 아마추어대회, 여자 아마추어대회
- 대회규모 : (남자대회)40여개국, 80여명 선수, (여자대회)20여개국, 80여명 선수

■ 유치목표연도 : 2024년도(여자대회)

- 목표연도 : 2024년
- 한국의 경우 2016년에 인천에서 남자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으나 그 이후 개최하지 못하였고, 여자 아마추어 대회는 2018년에 처음으로 추진되어 싱가포르와 일본 등에서만 개최되고 있어 국내 개최 가능성이 있음
- 전라북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여자아마추어 챔피언십의 2023년 대회의 유치를 목표로 설정

〈표 3-6〉 아시아-태평양 여자 아마추어챔피언십 개최 현황

개최년도	대회일정	개최국 및 도시	우승국가(선수)	참가국 및 선수
2018	02.21~02.24	싱가포르	태국(아타야 티티쿤)	18개국, 83명
2019	04.25~04.28	일본 이바라키	일본(유카 야스다)	19개국, 80명
2021	2월 예정	태국 파타야	-	-
2022	미정	미정		
2023	미정	미정		
2024	미정	미정		

* 2020년 대회는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2021년 2월로 연기됨

■ 개최여건 및 기대효과

- 최근 골프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골프의 대중화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도 우수한 골프장을 보유
 - 군산에 위치한 CC에서는 한국여자골프협회(KLPGA)에서 진행하는 드림 투어, 호반챔피언스클래식 등 각종 투어대회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고 있음
- 대회 개최 시 아시아 지역의 전라북도 브랜드가 형성되고 아시아 지역의 골프 참관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 부산은 지난 2018년 LPGA 투어 대회 유치를 성공시켰으며 3년간의 LPGA투어 개최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2018년, 뉴스핌 기사)하였고, 국내 아마추어대회의 개최 또한 약 6억 2천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16년, 충청신문기사)를 내고 있어 아태아마추어챔피언십 개최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
- 또한, 경기가 라이브중계 공식 사이트(AACgolf.com)를 통해서 160개국 이상으로 경기영상을 송출하여 세계에 생중계됨으로 전라북도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효과 기대

『골프대회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 2015년 인천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대회는 약 5,500억원 경제효과 발생
- 대전은 2016년 '강민구배 한국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 개최로 약 6억 2천만원 경제효과 발생
- 부산은 LPGA투어 대회 3년간(2019~2021년) 유치로 약 1조 5천억원의 경제효과 추정

마. 하계월드마스터스 대회

■ 배경

- 마스터스대회는 능력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출전 가능한 대회로 전 세계 스포츠인의 축제일뿐만 아니라 은퇴한 프로선수도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흥행 측면에서도 장점을 지님
 - 대회의 참가요건은 30세 이상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라면 능력, 국가, 성별에 관계없이 참석이 가능하며 연령대별, 경기 경험별로 나눠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
- 국제올림픽(IOC) 인정 단체인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International Masters Game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마스터스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1회 월드 대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9회의 대회가 개최되었고, 동계월드대회는 2010년 처음 시작
 - 월드마스터스대회는 하계 월드 마스터스대회, 동계 월드 마스터스대회 등 세계 마스터스대회와 유럽 마스터스대회, 아메리카 마스터스대회, 아태 마스터스대회 등 대륙별 마스터스대회로 개최되고 있음
- 전북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경기대회가 완료된 이후 성과를 평가한 후 하계월드마스터스 개최

■ 사업개요

- 대회명 : 하계월드마스터스대회
- 주최 :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 목표연도 : 2033년
- 대회규모 : 100개국, 28,578명(2017년 9회 대회 기준)

■ 개최여건

- 전라북도는 2018년 전국체육대회, 2019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전(개최연기)등 체육대회를 연이어 개최한 만큼 체육대회와 관련한 인프라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음
- 특히,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는 전라북도가 국제규모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월드마스터스대회의 유치경쟁에 큰 강점으로 작용될 것이라 기대됨
- 전라북도는 아직 개최지가 미정인 2033년 제13회 월드마스터스대회의 유치 도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3-7〉 월드마스터스대회 역대 개최 현황

회차	개최년도	개최국	참가규모	비고
1회	1985	캐나다 토론토	61개국, 8,305명	
2회	1989	덴마크 알봉	37개 종목 76개국, 5,500명	
3회	1994	호주 브리스번	30개 종목 74개국, 24,500명	
4회	1998	미국 포틀랜드	28개 종목 102개국, 11,400명	
5회	2002	호주 멜버른	37개 종목 98개국, 24,886명	
6회	2005	캐나다 에드먼턴	30개 종목 89개국, 21,600명	
7회	2009	호주 시드니	28개 종목 95개국, 28,676명	
8회	2013	이태리 튜린	30개 종목 99개국, 15,394명	
9회	2017	뉴질랜드 오클랜드	28개 종목 100개국, 28,578명	
10회	2021	일본 간사이	34개 종목 100개국, 50,000명(목표)	*2022년으로 개최 연기
11회	2025	대만 신베이	개최국 확정	

회차	개최년도	개최국	참가규모	비고
12회	2029	미국 LA	개최국 확정	
13회	2033	대한민국 전북	개최국 미정	*전라북도 유치 도전

4. 국제기구 : FAO 세계농업대학³⁾

■ 배경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식량 안보(Food Security)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Sustainable Agriculture Promotion) 등을 중요 아젠다로 설정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유엔 산하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식량과 농산물 생산 및 분배, 개발도상국 농민의 생활 등을 다루는 국제기구
- 기후변화, 병충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 등 다양한 자연적, 인위적 재해 발생으로 인해 농업생산 및 유통 등의 농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농업 의존도가 높은 편인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국가의 생존 및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 FAO는 세계 영양부족 인구 수를 2018년 기준 8억 2,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19)
 - 최근 발생된 COVID-19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콩고, 중앙아프리카, 남수단, 아이티, 시리아, 미얀마 등)의 식량위기 및 기아상황은 기존 상황에 비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2019년 1억 3,500만 명 → 2020년말 2억 6,500만 명, World Food Programme)
- 식량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FAO는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농업 개발 촉진을 위해 농업혁신의 중요성 및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필요성을 강조
- 따라서, 식량안보의 위기 극복 및 개발도상국의 농업 기반 구축(농

3) 이동기·이은정(2020). ISSUE BRIEFING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하여 전북에 유치하자'를 수정·편집하여 재작성함

업 자원 관리 및 농업기술, 농업 기계 운용 등)을 위한 체계적인 인재육성 방안으로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제안

-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개발도상국가의 농업역량 강화하고 농업과학 및 농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아, 빈곤, 영양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설립 필요성

- FAO 현장 제1조에서 개도국의 농업역량을 위한 교육 중요성을 강조
 - FAO는 “디지털 혁신”로 인해 개도국의 농업혁신을 촉진, 이를 위해 농업인재 양성을 통해 개도국의 식량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농업촉진
- UN은 제로헝거,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등 SDGs 달성을 노력 추진
 - 지원이 필요한 44개국가 지정(FAO, 2019 세계식량안보 및 영양보고서)
- 기후변화, 병충해, 코로나 19 등 농업생산의 위기 극복 및 식량안보 해결을 위해 교육훈련을 통한 농업인력양성 필요성 확대
 - WFP(World Food Programme)는 코로나 19로 식량위기 인구가 2020년말 2억 6,500만명에 될 것으로 추정
- 대한민국은 수원국으로서 공여국으로서 자산 축적 및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개발도상국가와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최적 국가위상 보유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를 통해 76개국 협력국 9개기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G20정상회의(2010),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2019), APEC정상회의(2025) 등 개최

-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개도국의 농업 혁신 및 성장을 위해 지원
 - 농업분야의 국제개발협력 규모 총 1,121.9억원('20년)
-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FAO의 정책 타당성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의 농업혁신 성장의 경험 자산을 연계할 수 있는 최고의 국제기구임
-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통해 개도국 선진농업 활성화 및 우수농업 현장교육 등 K-Agriculture 확산 기여
 - 아프리카 쌀 생산지원(농식품부), UAE 쌀 생산사업(농진청), 한국농수산대학 현장교육 등

■ UN 국제기구 설립의 전라북도 최적지 당위성

- 대한민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모범국으로서, OECD 가입 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2018년 기준 29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15위에 해당하는 23.5억 불 지원('09년 8.2억 불 → '18년 23.5억 불)
- 2020년 ODA 지원 분야는 교통(13.6%), 교육(10.4%), 보건(10.0%)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농촌개발 및 고등교육 등을 신남방국가에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개발 협력을 추진
 - 2020년 농업분야의 국제개발협력 규모는 총 1,121.9억 원(농림축산식품부 889.5억, 농촌진흥청 232.4억)이며 지원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프로젝트(79.3%), 농촌진흥청의 경우 개발컨설팅(97.1%)에 집중
 - 2014년~2020년 동안 전 세계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사업 지원 실적은 총 413건(4,693억 원)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농업 성장에 기여

- 전북은 대한민국 대표 농생명산업 도시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민간육종단지 등 우수한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아시아 농생명밸리 및 농업기술 혁신의 최적지로 평가됨
 - 전북의 농업정책인 삼락농정(三樂農政)이 전국적 대표 모범 정책사례로 평가받는 등 전북은 농업부문에서 탁월한 정책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지속적인 농업 생산자의 조직화 및 유통의 규모화 추진을 통해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평가 전국 1위('20년)
- 더불어 도내에 농업 및 농촌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 및 전라북도 농업기관, 대학 등이 집적화되어 있어 농업의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밑거름은 뒷받침되어 있음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130개 과정 7,800명) 평가결과 전국 1위 ('19년)로 농업 교육메카로 성장하고 있음
- 특히, 도내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 농업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등 농업기술 역량강화,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세계농업대학 설립지역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구축
 - 2009년부터 특화 해외 농업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47개 국가의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 대륙별 공통농업 기술 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 국내 농업기술 전문가 566명 파견, 개도국 농업 관련자 727명 초청 훈련 등 농업기술 역량 강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해외 농업기술개발은 아시아·CIS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중남미 5개국 등을 중심으로 채소, 벼, 양잠, 축산, 농기계, 과수 등의 기술 이전

■ 국제기구 유치 절차 및 운영(안)

○ 설립 절차

- 농림부의 국가사업화 추진 확정 ▷ UN FAO 사전협의 ▷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협의 ▷ UN FAO 농업분과위원회 승인 ▷ FAO 현장 법률위원회 승인 ▷ FAO 총회의제 상정 및 승인

○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 (교육대상) 개도국 등 농업관련자(창농희망자, 학생, 공무원 등)
- (교육과정 운영) 석사과정으로 시작, ※ 박사과정으로 확대
- (교육기간) 석사과정은 2년(20명 기준)
- (전공과정) 스마트농업창업학부, 식량자원학부, 원예특용작물학부, 축산 기술학부 등
 - ❖ 부경대 세계수산대학 : 석사과정 30명, 3개 전공(양식기술, 자원관리, 사회과학), 12과목(필수4, 선택8), 3학기

○ (교육시스템) 전문이론, 현장실습, 창업실습

○ (운영협력조직) 농림부, 전라북도, KOICA,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 (대학캠퍼스 시설) 재원 : 국비

- 1단계 : 시범사업(도내 대학 시설 활용)
- 2단계 : 캠퍼스 구축, 1,000억(강의실 등 건물, 기숙사 등 신축)

○ (실습장)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등 활용

○ (운영재정지원) FAO, 외교부(KOICA),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 운영비추정 : 10년간 약 1,200억 5,000만원
 - ❖ KOICA 및 농림부 889.5억, 농촌진흥청의 ODA 사업예산 232.4억으로 총당
- 전라북도 지원방안 : 세계농업대학 부지

■ 추진 방향

- (국제기구 유치 TF 구성) 전북도, 전북대, 농촌진흥청, 한농대, 전문가 등
 - 국가적, 전라북도의 당위성 및 추진방향 마련 등
- (네트워크 구축) 농림부-외교부-UN FAO-FAO 한국협회-KOICA-공동협력체계 구축
- (공감대 확산 및 국가사업화 추진) 도내 공감대 확산 및 국가사업화 추진(대선공약 등)하여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전라북도, 세계농업수도로 성장
 - FAO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성격의 세계농업대학 유치 시 전라북도가 세계의 농업 인력양성 핵심 지역으로 세계농업수도 성장
 - FAO의 SDGs를 핵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세계적인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부상
- 세계농업대학 캠퍼스 조성으로 지역경제 효과 거양
 - FAO의 세계농업대학 캠퍼스 조성은 교육시설, 기숙사시설, 교수연구시설, 행정시설,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 경제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 (사례)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따라 건립비 1,040억으로 추정(세계 수산대학 건립비 494억, 국제어업교육원 건립비 546억 11백만원), 생산유발효과 5,307억 75백만원, 부가가치 2,264억 63백만원, 소득유발액 1,285억 28백만원, 취업 및 고용유발인원은 각각 4,161명, 3,388명으로 추정
- 대한민국 및 세계농업 도시로서 글로벌 브랜드 제고

- FAO의 세계농업대학이 UN 정식 국제기구로 인정될 경우 전북이 세계적인 농업도시로 글로벌 브랜드가 형성되어, 세계 농업 지도자, 전문가, 교육훈련생 등의 지속적인 방문 및 전북의 우수 농업 정책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코스타리카는 UN 평화대학이 있는 지역으로 2천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평화상징 지역으로 국가브랜드가 형성
- 전북의 농식품농업기계 수출 활성화 및 농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 세계농업대학의 전라북도내 시설 및 기계를 활용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농업대학 졸업생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전라북도의 농·식품 및 농업기계 등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촉진 및 관련 농업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
- UN 총회, 세계 농업회의 및 농업관광 등이 활성화되어 생태문명도시로서의 세계적 위상 형성
-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으로 UN 총회, 세계농업 지도자 및 전문가 회의, FAO 농업 관련 대륙별 회의 및 농업 관련 총회 등이 개최 가능
 - 이로 인해 전라북도의 농업관광이 활성화되고, 생태문명도시로서의 세계적인 위상이 형성될 수 있음
- 미래 농업 리더 육성 및 세계적 농업이슈 대응력 강화
- 세계농업대학을 통한 전북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의 농업 개척자로서 성장 기회 제공
 - 도내 농업대학 교수들과 세계농업대학과의 교류,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세계적인 농업 이슈 대응 및 R&D 기반을 구축하여 한층 향상된 전북 농업의 기술 선진화가 달성

■ 유사사례 1 : FAO 산하 세계수산대학(부경대) 시범사업

- 부산은 FAO 세계수산대학을 '13년 추진하여 '17년 7월에 최종 FAO총회에서 승인거쳐, 시범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시범 평가 후 정식 국제기구로 인정

구분	주 요 내 용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 역량구축 활동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석사과정, 단기 훈련과정, 수산분야 세미나) 공동 개발 및 이행· FAO 의사결정기구의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 정보 제공
주체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O) 시범사업 관련 모든 통신문과 학생 선발 승인, 교육내용에 대한 기술 자원자문 및 자료 제공· (해수부) 시범사업 이행 관련 시설·서비스·자원 제공, 입국·체류 편의 제공 등· (부경대) 시범사업 개발 및 제공, FAO 직원 근무시설과 학생 필요시설 제공, 학생 평가 및 최종시험 시행
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FAO 사무국과 해수부 대표· (회기) MOU 발효 후 최소 6개월마다· (역할) 학사, 행정, 재정사항, 시범사업 제도·지침의 검토 및 승인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석사과정 30명, 3개 전공(양식기술, 자원관리, 사회과학), 12과목(필수4, 선택8), 3학기

■ 유사사례 2 : IMO 세계해사대학

- 유치사례 : 1980년 스웨덴 정부에서 해사 관련 세계대학을 말뫼시에 설립 제안하여 1981년 11월 총회 승인
- 유치목적 : 해사 분야 중견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국제해사 교육연구기관으로 해사 안전, 해상오염 방지, 해운산업 등의 지도자 양성 등을 통한 해사 관련 국제 격차 해소
- 운영 : 해사교육과 훈련, 해사법과 정책, 해사 안전과 환경행정, 선박과 항만관리 등 4개 전공별 석·박사과정(석사 100명, 박사 10명) 운영

■ 유사사례 3 : UN 평화대학

- 유치사례 : 1978년 12월 제33차 UN총회에서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평화대학 설립 제안하여 1980년 총회에서 승인
- 유치목적 :UN 세계평화대학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 촉진, 평화의 공존 정신 증진 목적으로 설립하여, 본부(코스타리카 산 호세)와 분원 3개(에티오피아, 필리핀, 네덜란드)를 운영하고, 8개 국가의 대학과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 운영 : 환경과 개발, 국제법과 인권, 평화와 갈등 연구 등 3개 과정을 석·박사과정과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생 대부분이 국제기구, 환경, 교육 및 인권 등에서 활동

정책연구 2021-30

전라북도 중장기 국제행사 발굴 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1년 3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53-7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1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 『무성서원원지』 하(1884년) 해제 및 번역
- 현대사회에서의 문화의 사회적 기능과 사례 연구
- 전북 모빌리티 리포트 (Mobility Report) 기본방향 구상
- 전라북도 뿌리산업 실태와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 농촌마을 기초생활서비스 격차분석 및 해소방안
- 전라북도 공공갈등 관리 방안 연구
-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식품콜드체인물류시스템 표준화 방안 연구
-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기획연구

-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 (II)
- 국제기구 유품을 위한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중장기 방안 연구
- 전라북도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방안 연구(II)

정책연구

- 강 생태관광 체험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뉴딜 성공추진을 위한 전북 공간정보 발전 전략
-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방안 연구
- 전북도립미술관 조직의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지역사회 생활기술종합학교 지정 및 운영방안
- 전북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세계잼버리 연계 정부지원사업 발굴 연구
-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
- 전북 ICT산업 기반경쟁력 강화 방안
- 동진강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농업배수 관리방안
- 전라북도 식품기업 기술혁신 방안
- 새만금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출장소 설치방안 연구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 연구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에 따른 전라북도 인프라 장기구상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 전라북도 장학숙 중장기 운영 발전방안 연구
- 전라북도 중소형/특수목적선 조선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연구
- 아태마스터스대회협회 유품방안 연구
-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활성화방안
- 지역활성화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
-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원조직 활용방안 연구
- 전라북도 드론산업 여건과 육성 방안
- 전라북도 웨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누리

출처표시 | 삼업용금지 | 연령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